



중2-1
국어
해냄

2027 중2-1 국어 해냄 | 2(2) 점검 조정하며 읽기 기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예상 출제 유형

이 단원에서는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의 각 독서 단계에 알맞은 읽기 전략을 구분하고, 자신의 수준과 목적에 맞는 글을 선정하는 기준을 묻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특히 학생들의 구체적인 생각이나 독서 행동을 <보기>로 제시한 뒤, 이것이 어느 읽기 단계의 어떤 전략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짚지어 찾아내는 적용 문제가 반드시 출제됩니다. 더불어,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과 「세상을 바꾼 사진들」의 세부 내용 일치 여부를 파악하는 문제도 다수 출제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단순히 읽기 전략의 명칭을 암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 독서 상황에 전략을 대입해 보는 훈련을 반복해야 합니다.

1. ‘점검·조정하며 읽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을 빠르게 읽어 내려가는 데 집중하며, 모르는 부분은 건너뛰는 읽기 방식이다.
- ② 글을 읽는 도중에 생긴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적절한 방법으로 해결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다.
- ③ 글의 내용을 무조건 반복하여 읽으면서 내용을 외우는 읽기 방식이다.
- ④ 글쓴이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생각대로 글의 내용을 재구성하며 읽는 것이다.
- ⑤ 글을 읽기 전에 배경지식을 충분히 쌓아 두면, 읽는 도중과 읽은 후에는 별도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다.

2.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의 제목과 차례를 훑어보며 내용을 예측한다.
- ② 글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린다.
- ③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찾아본다.
- ④ 글을 읽는 목적을 미리 정한다.
- ⑤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

3. <보기>는 읽을 글을 선정하기 위한 승민이와 준석이의 대화이다. 승민이가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은?

<보기>

승민: 국어 시간에 읽을 책 골랐니?
 준석: 응, 나는 축구 선수가 꿈이니까 축구에 대한 책을 읽으려고. 너는?
 승민: 나는 인공 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어서 인공 지능에 대한 책을 읽을 거야.

- ① 현재 내 독해력으로 쉽게 읽어낼 수 있는가?
- ② 이 책을 읽어서 달성하려는 목표가 뚜렷한가?
- ③ 책의 전체적인 분량이 나에게 적당한 수준인가?
- ④ 전문가나 다른 사람들이 강력하게 추천하는가?
- ⑤ 흥미를 끄는 구체적인 사례가 많이 담겨 있는가?

4. 다음 중 글을 ‘읽기 전’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읽기 전략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글을 읽는 목적을 뚜렷하게 세우고 읽기를 시작한다.
- ② 문맥을 살피며 모르는 어휘의 정확한 의미를 짐작한다.
- ③ 다 읽은 뒤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에 대해 검색한다.
- ④ 각 문단의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글 전체를 요약한다.
- ⑤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을 정리해 본다.

【5~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실리아 할머니의 그림

(가) 우리 모두가 웃을 수밖에 없는 스페인의 세실리아 할머니 이야기가 있다. 세실리아 할머니가 평생 열심히 다니던 성당의 벽에는 어떤 벽화가 그려져 있었다. 그런데 풍화된 벽화의 상태가 할머니가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았나 보다. 그림 일부가 떨어져 나가 있었고, 가만히 두면 곧 없어져 버릴 것 같았다. 그래서 안 된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직접 팔을 걷어붙였다. 하지만 할머니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복원되지는 못했다. 색을 칠하면 칠할수록 원래의 그림은 사라지고 우스꽝스러운 그림만 남게 된 것이다.

(나) 그림이 이렇게 되자 할머니는 큰 죄책감에 빠져 고통스러워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마을 사람들로 부터의 비난은 물론이고 전 세계 언론의 조롱에도 시달려야 했다. 그런데 조용한 시골 마을에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벽화가 그려져 있는 성당은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거의 없는 작은 도시에 위치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잘못 복원된 그림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는 것이다.

(다) 심지어 우스꽝스럽게 복원된 이 그림에는 보호 아크릴이 씌워졌고, 이 벽화를 활용한 열쇠고리, 냉장고 자석 등의 기념품까지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세실리아 할머니의 잘못된 복원이 이와 같은 의외의 결과를 만들고 있는 것이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 이 벽화의 정상적인 복원을 위해서는 보존 과학의 힘이 필요했다. 보존 과학은 미술품의 복원을 연구하는 분야로, 미술 작품의 물질적 성질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작품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보존가 또는 보존 과학자라 하고, 아픈 그림을 치료한다는 의미로 ‘@ 미술품 의사’라 부르기도 한다. 미술 작품을 치료할 때 보존가는 먼저 작품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제작되었는지,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조사한다. 그리고 치료가 필요한 작품은 어떤 방법으로 수술할지 고민하고, 손상을 예방하기 위한 처방전을 쓰기도 한다.

(마) 그렇다면 보존가들은 그림에서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을 어떻게 복원할까? 이 질문에 대한 가장

간단한 대답은 색을 칠해 넣는다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색 맞춤’이라고 한다. 문제는 어떤 원리와 원칙으로 칠하는가인데, 이를 설명하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처리의 가장 큰 목적이 그림을 감상하기에 적합한 이미지로 완성하는 것이지 완전하게 처음 상태의 그림으로 복원하거나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과정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좋은 의지만 지니고 있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바) 색 맞춤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훼손되어 사라진 부분에만 색을 칠하고 남아 있는 원래의 그림 위에 덧칠해서는 안 된다. 당연한 말 같지만 사실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복원을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이 색을 칠하다 보면, 마치 자신이 화가가 된 것처럼 새로 그림을 그려 넣는 실수를 하기도 한다.

(사) 둘째, 새로 칠하는 물감은 색이 쉽게 변하거나 균열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원래의 그림과 잘 어울려야 한다. 그러나 유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화 물감을 사용하지는 않으며, 마찬가지로 아크릴 회화 작품의 사라진 부분을 복원할 때도 아크릴 물감으로 색 맞춤을 하지는 않는다. 복원 처리가 끝난 후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은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한다. 이는 나중에 그림에 손상을 주지 않고 복원된 부분을 제거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아) 셋째, 그림의 사라진 부분을 내 마음대로 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 자료를 찾아 그림의 원래 이미지를 조사해야 하고 최대한 비슷하게 그려 넣는다. 그림에 대한 아무런 정보나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해도 사라진 부분을 자기 마음대로 그려 넣을 수는 없다. 그럴 때는 최대한 색과 채도만 비슷하게 채워 넣는 방법을 쓴다. 거리를 두고 멀리서 보면 차이를 인식할 수 없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색 맞춤한 부분이 원래의 그림과 구별되도록 하는 것이다.

(자) 우리가 흔히 잘못된 보존 처리라고 말하는 것은 작가의 의도와는 다르게 작품의 원래 모습이 변해 버렸을 때이다. 손상되지 않은 부분까지 필요 이상으로 덧칠했거나 제거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까지 제거되었을 때도 있다. 보존 처리에 사용된 재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작품의 안전과 미관에 해를 끼치기도 한다. 보존 처리에 사용하는 재료를 반드시 제거가 가능한 것으로 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

기에 있다.

(차) 페데리코 제리는 “잘못된 한 명의 보존가는 비행기 폭격보다 더 큰 피해를 남길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제 아무리 훌륭한 미술 작품이라도 시간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으니 바로 보존가의 잘못된 복원이라는 것이다. 작품의 보존 처리가 필요하다면, 보존가의 전문 기술은 물론이고 보존 처리를 위해 선택한 재료와 방법이 올바른지도 살펴보아야 한다. 근본적으로 무엇을 보존하고자 하는지 방향을 설정하고, 현실적인 한계와 자신의 능력에 대해 끊임없이 성찰하고 질문을 던지는 태도도 필요하다. 특히 현대 미술 작품을 보존 처리해야 할 때에는 너무 많은 선택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미술품 의사’는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5. 다음 중 이 글을 ‘읽기 전’ 단계에 있는 학생이 올바른 읽기 전략을 사용한 경우는?

- ① 석민: 어려운 용어가 많으니 사전을 찾아가며 꼼꼼히 읽어야지.
- ② 한솔: 제목의 ‘세실리아 할머니’를 보니 내가 아는 사건 같아.
- ③ 찬: 색 맞춤의 원칙들을 나만의 언어로 다시 짧게 요약해 볼래.
- ④ 지수: 이 그림이 왜 유명해졌는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찾았어.
- ⑤ 명호: 미술품 복원과 관련된 내 진로를 더 깊이 탐색해 보기로 했어.

6.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보존 과학은 작품을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재탄생시키는 학문이다.
- ② 훼손된 벽화를 직접 고치려던 할머니의 시도는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다.
- ③ 보존가는 복원 작업을 시작하기 전 작품의 훼손 원인부터 면밀히 살핀다.
- ④ 그림의 사라진 부분은 복원가의 뛰어난 상상력을 발휘하여 채워 넣는다.
- ⑤ 색 맞춤을 할 때는 남아 있는 원래의 그림 위에도 자연스럽게 덧칠한다.

7. 이 글을 ‘읽는 중’에 사용할 만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핵심 정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며 집중한다.
- ②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은 앞뒤 맥락을 살펴 의미를 유추한다.
- ③ ‘풍화된’이라는 단어의 뜻을 모를 때 국어사전을 검색해 본다.
- ④ 글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지식과 깨달은 점을 요약·정리한다.
- ⑤ 내가 읽기 전에 미리 짐작했던 전개 방향이 맞는지 대조해 본다.

8. <보기>는 수아가 이 글을 읽는 중에 사용한 전략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은?

<보기>

수아: 복원된 부분과 원래 그림이 완전히 구별 가능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 …… 아, 시간이 지나면서 복원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딱 그 부분만 제거해야 해서 그렇구나.

- ① 모호한 문장의 의미를 배경지식을 동원하여 짐작하고 있다.
- ② 스스로 의문을 제기한 뒤 이어지는 글 속에서 해답을 찾고 있다.
- ③ 글쓴이의 주장이 타당한지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비판하고 있다.
- ④ 글을 다 읽고 난 후 변화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고 있다.
- ⑤ 글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핵심 개념들의 관계를 도식화하고 있다.

9. <보기>는 수아가 이 글을 읽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에 해당하는 읽기 단계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 책 표지에 있는 정보를 보니 글쓴이가 실제 미술 보존가구나. 복원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 있을 것 같아.

㉡ ‘풍화된’ 벽화라는 것은 무슨 뜻이지? 단어를 검색해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닳아 없어지는 것을 뜻하는 거구나.

㉢ 성공적인 미술품 복원 사례로는 무엇이 있을까? 더 찾아봐야겠어.

	㉠	㉡	㉢
①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②	읽는 중	읽기 전	읽은 후
③	읽기 전	읽은 후	읽는 중
④	읽은 후	읽는 중	읽기 전
⑤	읽는 중	읽은 후	읽기 전

10. 다음 중 이 글을 통해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 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복원 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어디일까?
- ② 세실리아 할머니가 원래 그리려고 했던 벽화의 주제는 무엇일까?
- ③ 그림의 훼손된 부분을 채워 넣을 때 보존가가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
- ④ ‘페데리코 제리’가 미술품 보존과 관련하여 남긴 주요 저서는 무엇일까?
- ⑤ 훼손된 미술 작품 하나를 복원하는 데 드는 평균적인 비용은 얼마일까?

정답 및 해설

1. **정답** ②

점검·조정하며 읽기란 글을 읽는 도중에 생긴 문제를 스스로 알아차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읽어 나가는 것이다.

- ① 모르는 부분을 건너뛰는 것은 점검·조정하며 읽기와 반대되는 태도이다.
- ③ 단순 반복 암기는 읽기 과정을 점검·조정하는 것과 다른 개념이다.
- ④ 글쓴이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점검·조정하며 읽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 ⑤ 점검·조정하며 읽기는 읽기 전, 읽는 중, 읽은 후 세 단계 모두에서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2. **정답** ⑤

중심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은 ‘읽은 후’ 단계에서 활용하는 전략이다. 읽기 전 단계에서는 내용 예측, 배경지식 활성화, 읽기 목적 설정, 글쓴이 정보 파악 등의 전략을 활용한다.

- ① 제목과 차례를 통한 내용 예측은 대표적인 읽기 전 전략이다.
- ② 배경지식을 떠올리는 것은 글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읽기 전 전략이다.
- ③ 글쓴이에 대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것은 글의 신뢰성과 관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④ 읽기 목적을 정하는 것은 읽기 전 단계의 핵심 전략이다.

3. **정답** ②

승민이는 ‘인공 지능 기술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고 싶’다는 분명한 지식 습득의 목적을 가지고 책을 골랐다. 따라서 ‘글을 읽는 목적’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승민이가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으로 적절하지 않다.

4. **정답** ①

글을 읽는 뚜렷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은 책을 펴기

전인 ‘읽기 전’ 단계에서 수행하는 가장 기본적인 독서 전략이다.

- ② 읽어 나가는 도중에 수행하는 ‘읽는 중’ 단계의 전략이다.
- ③, ④, ⑤ 글을 끝까지 다 읽고 난 후 내용을 갈무리할 때 사용하는 ‘읽은 후’ 단계의 전략이다.

5. **정답** ②

한술이는 글의 제목을 단서로 삼아 자신이 과거에 뉴스나 매체에서 보았던 사건을 떠올리고 있다. 이는 읽기 전 단계의 ‘배경지식 활성화하기’ 전략이다.

- ① 사전을 찾는 것은 ‘읽는 중’ 전략이다.
- ③ 내용을 요약하는 것은 ‘읽은 후’ 전략이다.
- ④ 질문하고 답을 찾는 것은 ‘읽는 중’ 전략이다.
- ⑤ 진로를 깊이 탐색하고 연계하는 것은 ‘읽은 후’ 전략이다.

6. **정답** ③

(라)에서 보존가는 미술 작품을 치료할 때 먼저 작품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고, 왜 지금의 상태에 이르렀는지 그 원인부터 조사한다고 설명했다.

- ① (마)에서 완전히 새로운 그림을 만드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고 했다.
- ② (가)에서 할머니의 의도대로 복원되지 못하고 우스꽝스러워졌다고 했다.
- ④ (아)에서 근거 없이 복원가 임의대로 상상하여 그려 넣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⑤ (바)에서 원래 그림 위에는 덧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7. **정답** ④

글을 모두 읽은 후에 새롭게 알게 된 지식이나 깨달은 점을 정리하는 활동은 ‘읽은 후’ 단계의 독서 전략이다.

- ①, ②, ③, ⑤ 나머지는 모두 글을 읽어 나가는 도중에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읽는 중’ 전략이다.

8. **정답** ②

수아는 글을 읽다가 “이유는 뭘까?”라고 스스로 질문(의문)을 던졌고, 이어지는 문맥을 읽고 “그 부분만 제거해야 해서 그렇구나.”라며 스스로 답을 찾고

있다.

①, ③, ④, ⑤ 나머지는 모두 수아가 <보기>에서 활용한 전략으로 적절하지 않다.

9. 정답 ①

㉠은 글을 읽기 전에 책 표지의 저자 정보를 보고 내용을 예측하는 것으로 '읽기 전' 단계의 전략이다.

㉡은 글을 읽는 도중 모르는 단어를 검색하여 의미를 확인하는 것으로 '읽는 중' 단계의 전략이다. ㉢은 글을 다 읽은 후 더 알고 싶은 내용을 찾으려는 것으로 '읽은 후' 단계의 전략이다.

10. 정답 ③

(바), (사), (아)에 걸쳐 보존가가 훼손된 부분을 채워 넣을 때 지켜야 하는 '색 맞춤의 세 가지 원칙'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답을 찾을 수 있다.

①, ②, ④, ⑤ 이 글의 내용만으로는 특정 국가의 기술 수준, 할머니의 원래 구상, 페데리코 제리의 쓴 책 이름, 복원 비용 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다.